

<Quarterly Report>

해외건설 인사이트(INSIGHT)

[2020 – Vol. 4]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참여 연구원의 주관적인 견해로, 해외건설협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목 차 ~~

I.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1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1
2. 지역별 시장 동향	1
3. 공종별 시장 동향	10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11
1. 거시지표	11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16
3. 글로벌 PPP 시장 동향	20
III. 해외건설 수주 진단	24
1. 수주추이 및 특징	24
2. 지역별 수주 동향	25
3. 공종별 수주 동향	27
IV. 정책제언	29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전망

- 글로벌시장 조사기업 IHS Markit, 세계건설시장규모 전망치를 10.7조불로 수정 발표(9월말), 이는 6월 전망 대비 0.2조불 상향 조정된 수치임
 - 세계건설시장규모 전망(조불) : 11.1('20.4) → 10.5('20.6) → 10.7('20.9)
 - 세계건설시장성장률 전망(%) : -1.7('20.4) → -6.8('20.6) → -4.4('20.9)
- 세계건설시장 주요 동향
 -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 진입(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 -5.2('20.6) → -4.4('20.9)
 - 중국 등 주요국의 실물 경기 반등과 함께 하반기부터 기자재/인력 수급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됨
 -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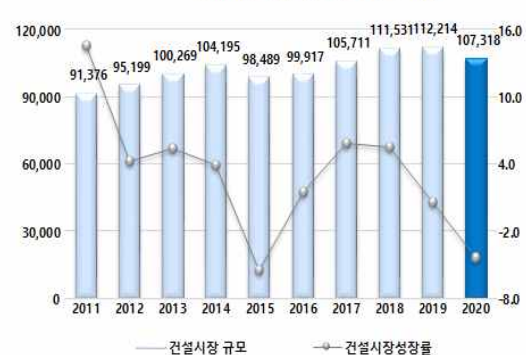
[세계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9)	이전 전망 ('20. 6)	증감
규모(억불)	107,318	105,358	1,960
성장률(%)	-4.4	-6.8	2.4
CAGR*(%)	1.8	1.4	0.4

[출처 : IHS Markit(2020. 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추이]



2. 지역별 시장 동향

- (아시아) 세계건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지난해 대비 2.6% 역성장한 5조 3,644억불로 전망
 - 아시아 주요 시장 중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는 국가는 중국(0.2%), 대만(3.6%), 베트남(1.7%)임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9)	이전 전망 ('20. 6)	증감
규모(억불)	53,644	55,384	-1,740
성장률(%)	-2.6	-1.9	-0.7
CAGR*(%)	3.2	4.0	-0.8

[출처 : IHS Markit(2020. 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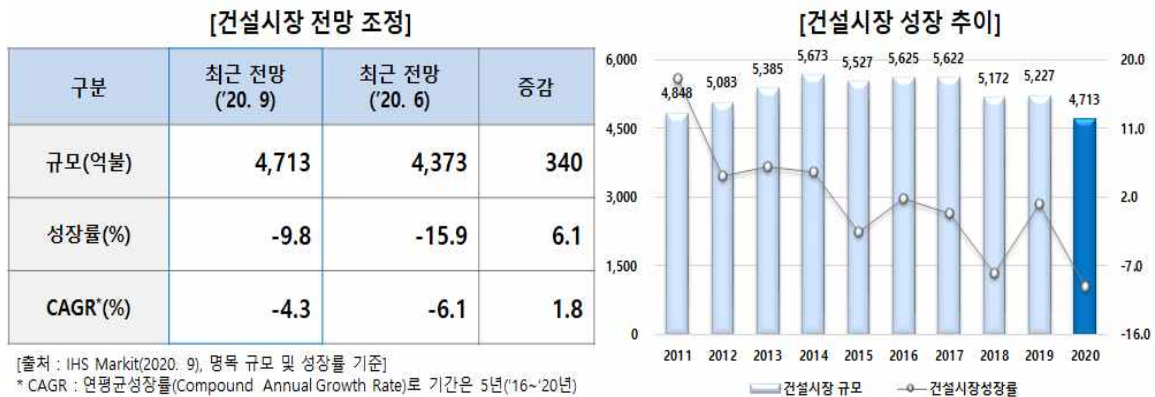


- 중국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0.2% 증가한 3조 4,746억불로 전망. 지난 3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철강 생산량과 함께 인프라 분야 투자도 반등하고 있음
- 중국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2,134억불을 교통 인프라에 투자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부양책을 통해 고속철도, 도로, 5G 관련 인프라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7% 증가한 308억불로 전망되며 코로나19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생산거점으로 베트남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킴
-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발전소 등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음
- 특히 베트남 정부 최우선 프로젝트인 북남고속철도(The North - South High-Speed Railway) 총 사업비는 약 587억불에 달하며 연간 25백만 명의 승객, 1.2백만톤의 화물을 수용하기 위한 싼퐁탄국제공항(The New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태국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3.4% 역성장한 391억불로 전망되며 자국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관광(20%)과 무역(20%)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실업률 증가 및 소비 감소 영향으로 상업용 빌딩 및 주택 수요는 당분간 정체될 전망

- 태국 정부는 남부 지방의 도로, 철도 건설이 중심이 된 사업에 40억불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0~2027년 사이에 총 334억불규모 92건의 PPP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 중 3건의 주요 공항(Don Muang-Suvarnabhumi-U Tapao)을 연결하는 70억불 규모의 철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7.2% 역성장한 3,293억불로 전망되며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이익 및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음
- 정부가 할당한 2020년도 인프라 투자액 290억불 중 30%는 축소된 상황이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2020~2024년간 4,300억불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신수도 이전사업, 25건의 신공항,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 중장기적인 관심 필요
- 말레이시아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8.2% 역성장한 392억불로 전망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업 침체와 유가 하락에 따른 실물 경제 타격으로 민간 투자 심리도 위축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582억불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4.6억불 규모의 동부 해안철도사업(The East Coast Rail Link)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 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9년 기준 2% 수준인 신재생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8.3% 역성장한 220억불로 전망되며 싱가포르 건설청(BCA,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은 지난 6월부터 건설 현장의 점진적인 재개를 승인하고 있음
- 특히, 도심 지하철(Metro Rail Transit, MRT), 지하 하수처리 터널(The Deep Tunnel Sewerage System, DTSS), 주택 개보수 사업과 같은 민생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중임
- 중장기적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교통 인프라에 723억불 투자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가 기대되며 2020년 현재 약

350MW 수준인 태양광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2GW 수준으로 확충할 전망이다

- **(중동)** 세계건설시장의 4.4%를 차지하는 중동 건설시장은 지난해 대비 9.8% 역성장한 4,713억불 규모로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7.5% 역성장한 876억불로 전망되며 정부는 세계적인 원유 수요 감소세, 유가 하락 및 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 정부 기관들에게 지출을 30%까지 줄이도록 지시한 바 있어 프로젝트 활동이 위축
-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VAT) 인상을 비롯한 탈 석유경제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도 건설시장에 불확실성을 확대되고 있음
- 단, 지난 7월부터는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완화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사회 인프라 및 오일/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점진적인 투자 재개가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등에 133억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볼 때, 향후 토목 및 건축부문 발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아랍에미리트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5.9% 역성장한 790억불로 전망되며 유가 하락에 따라 정부는 재정 지출을 계획 대비 약 50% 감소시킬 예정
-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주요 건설사 및 기자재 공급사를 대상으로 사업비용 감축방안을 제시하라는 통지를 한 상황임
-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에 343억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예산 중 인프라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카타르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4.3% 역성장한 481억불로 전망되며 가스 및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관광산업 위축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음
 -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부문 지원을 위한 206억불 규모의 경제 보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22 월드컵 관련 인프라를 비롯해 1,500억 불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대기 중
 - 특히 North Field Expansion(NFE) 사업에 대한 투자 기대로 건설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집트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7.6% 역성장한 395억불로 전망되며 코로나19로 인해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업이 상반기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정부는 건설부문에 2020~2021년간 248억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교통부문에 50%, 주거용 건물에 30%, 전력부문은 카이로와 기차지역을 중심으로 약 12억불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세계건설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시장은 지난해 대비 14.9% 역성장한 1,073억불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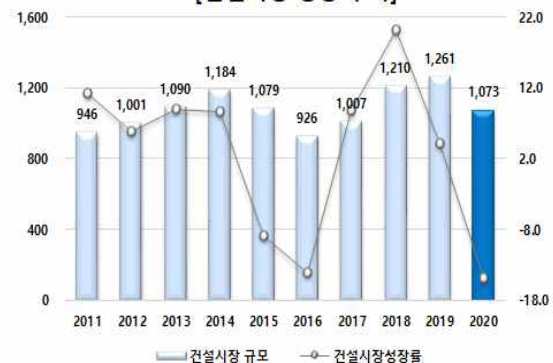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9)	최근 전망 ('20. 6)	증감
규모(억불)	1,073	1,101	-28
성장률(%)	-14.9	-12.6	-2.3
CAGR*(%)	3.8	4.5	-0.7

[출처 : IHS Markit(2020. 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압박, 보건 분야 지출 증가로 부채가 점증하고 있어 신규 발주는 물론 기존 시공 중 공사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남아공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7% 역성장한 312억불로 전망되며 지난 4월 전면적인 봉쇄(Lockdown)시행으로 건설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침체가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건설시장에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182억불(25건)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 198억불(65건)규모의 교통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4.3% 역성장한 481억불로 전망되며 GDP의 10%,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 가격 하락은 정부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킴
 - 이에 2020년 재정 지출은 25%가 감소되었으며 다양한 국책사업과 LNG 플랜트사업 지연이 예상됨
 - 단, 경제 회복을 위한 도로 사업 및 매년 30만호 주택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 등 59억불 수준의 경기 부양책도 추진되고 있음
 - 케냐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3.0% 역성장한 115억불로 전망되며 교역량 및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VISION 2030과 4대 국정과제(Big 4 Agenda) 추진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 조정되면서 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단, 현 케냐타 대통령은 VISION 2030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LAPSSET (Lamu Port-South Sudan-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 사업과 15억불 규모의 표준궤도철도(SGR, Standard-Gauge Railway)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모잠비크는 최근 피치로부터 투기(정크) 등급인 CCC를 받은 만큼 재정 여건이 악화된 데다가 금년 상반기에 예정된 300억불 규모의 로부마(Rovuma) LNG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결정(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이 결국 2021년까지 연기됨에 따라 LNG 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됨
- (중남미) 세계건설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은 지난해 대비 21.9% 역성장한 4,278억불로 전망됨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9)	이전 전망 ('20. 6)	증감
규모(억불)	4,278	4,250	28
성장률(%)	-21.9	-23.5	1.6
CAGR*(%)	-6	-6.2	0.2

[출처 : IHS Markit(2020. 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 브라질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24.5% 역성장한 1,191억불로 전망되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음
- 특히 브라질 산업은행(BNDES)이 주축이 되어 인프라 PP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브라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하반기부터 건설 활동이 회복되면서 8월 건설활동지수(CAI, Construction Activity Index)는 7월 대비 3.3포인트 증가한 51.4를 기록함
- 이와 함께 철 및 시멘트 등 건설자재 가격은 8월에 1.8% 상승했는데, 이는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임
- 멕시코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24.9% 역성장한 1,104억불로 전망되며 건설 및 제조업부문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데, 멕시코건설상공회의소(CMIC)는 약 2,400여개의 건설사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함
- 멕시코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 내린 4.25%로 조정하였으며 Andres Manuel Lopez Obrador(AMLO)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요 인프라 및 사회 프로그램에 256억불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함
- 칠레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24.1% 역성장한 318억불로 전망되며 칠레의 주 수출품인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점진적인 경제 회복이 예상됨(구리 가격은 지난 3월 급락 이후 중국 내 수요 증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칠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공공사업부는 올해 총 29억불을 투입하여 병원, 고속도로, 공항 등을 PPP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함
 - Enel Green Power Chile사는 총 1.8억불을 투자하여 144MW 규모의 Renaico II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ES Gener사는 5,000만불 내외의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들은 칠레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 페루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9.5% 역성장한 249억불로 전망되며 정부는 5월 중순부터 건설 분야에 대한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공 공사의 진척률은 저조한 상태(시멘트 가격도 하락(-4.5%))
 - 단, 경기 부양 및 활성화 대책으로 리마 국제공항 확장사업(13억불), 살라베리 항구 건설사업(1억불) 등이 포함된 주요 56건 인프라 사업에 총 27억불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미·태평양) 세계건설시장의 17.3%를 차지하는 북미·태평양 시장은 지난해 대비 2.8% 역성장한 1조 8,543억불로 전망됨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9)	이전 전망 ('20. 6)	증감
규모(억불)	18,543	16,500	2,043
성장률(%)	-2.8	-10.8	8.0
CAGR*(%)	1.6	-1.2	2.8

[출처 : IHS Markit(2020. 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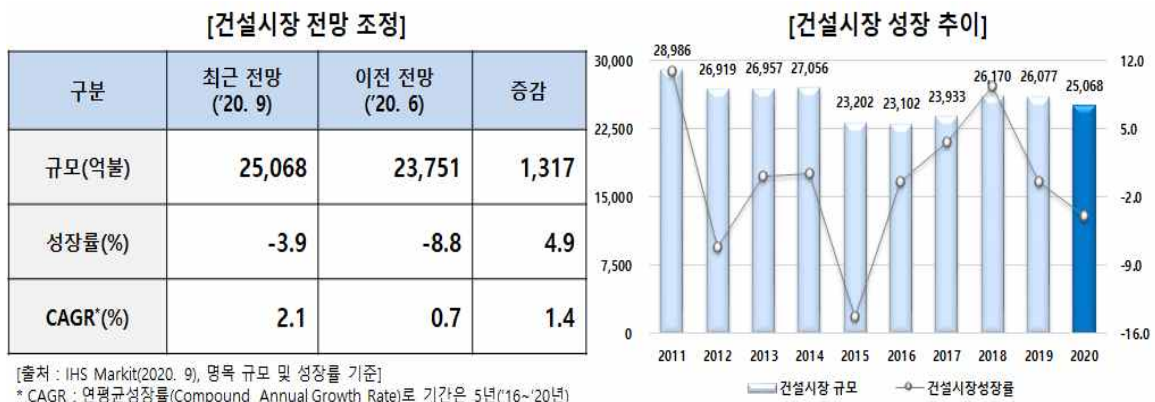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 미국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0.4% 역성장한 1조 3,502억불로 전망되며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선(11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건설시장 투자 심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최근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9.16)에서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미국 기준 금리는 0.00~0.25%인 현 기준 금리가 지속될 전망으로 저금리 기조하에서 다양한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됨
-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교통, 통신 인프라 및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기대됨
- 캐나다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1.5% 역성장한 1,671억불로 전망
- (유럽) 세계건설시장의 23.4%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은 지난해 대비 3.9% 역성장한 2조 5,068억불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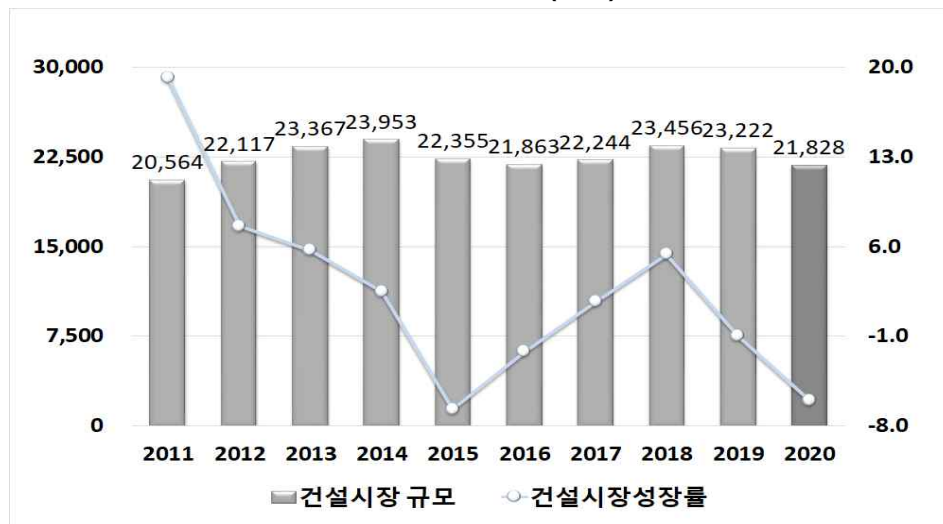


- 유럽 주요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또 다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프랑스(-5.5%, 2,926억불), 이탈리아(-6.1%, 2,033억불), 영국(-6.1%, 3,501억불) 건설시장은 역성장을 함
- 상기 국가를 비롯해 상반기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4.5%, 3,988억불), 네덜란드(3.4%, 1,246억불), 덴마크(1.9%, 398억불)에서는 플러스 성장
- 주목할 점은 경기침체 상황 하에서도 친환경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친환경산업에 대한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있음

3. 공종별 시장 동향

- 점진적인 경제 회복세 및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전 공종에서 성장을 전망치가 이전 분기대비 상향 조정됨
- **(플랜트)** 전체 시장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시장은 지난해 대비 6.0% 역성장한 2조 1,828억불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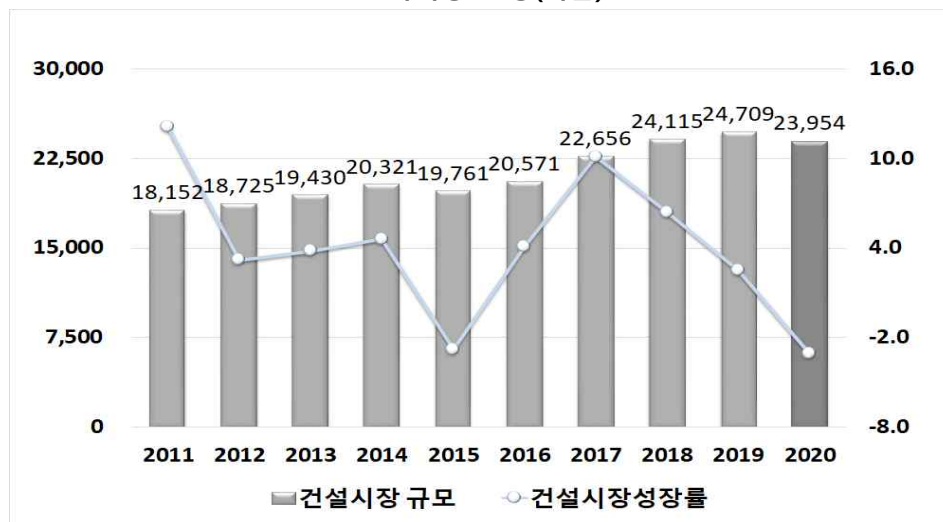
- 플랜트시장 전망(억불) -



* 출처 : IHS Markit(2020. 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토목)** 전체 시장의 22.3%를 차지하고 있는 토목 시장은 지난해 대비 3.1% 역성장한 2조 3,954억불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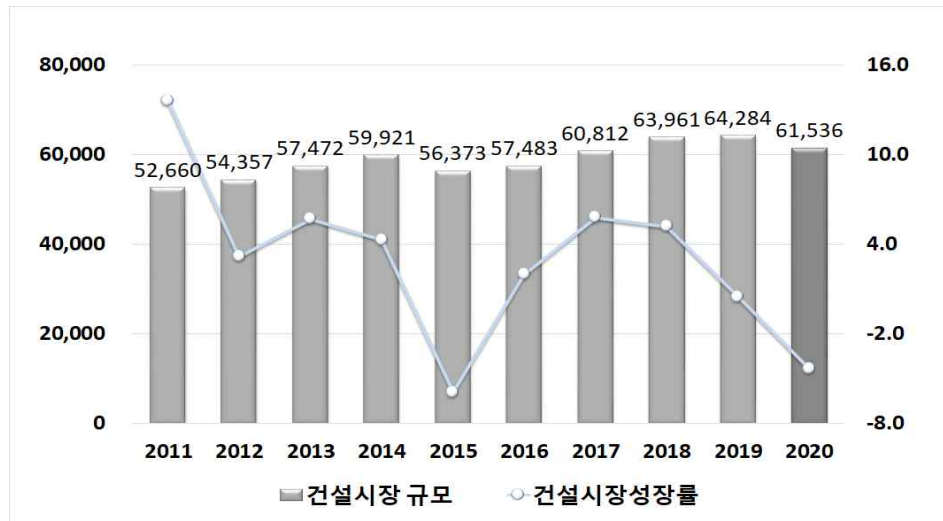
- 토목시장 전망(억불) -



* 출처 : IHS Markit(2020. 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건축) 전체 시장의 57.3%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시장은 지난해 대비 4.3% 역성장한 6조 1,536억불로 전망됨

- 건축시장 전망(억불) -



* 출처 : IHS Markit(2020. 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1. 거시지표

- (GDP 성장률) 중국이 예상 밖의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2분기 연속 역성장했던 우리나라도 +1.9%(속보치) 성장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 (IMF와 OECD 등 주요기관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 IMF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글로벌 경제의 성장 전망치는 -4.4%로 6월 대비 +0.8% 상향 조정했으나 앞으로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하면서 '21년 성장률은 +5.2%로 -0.2% 하향 조정

“A Long and Difficult As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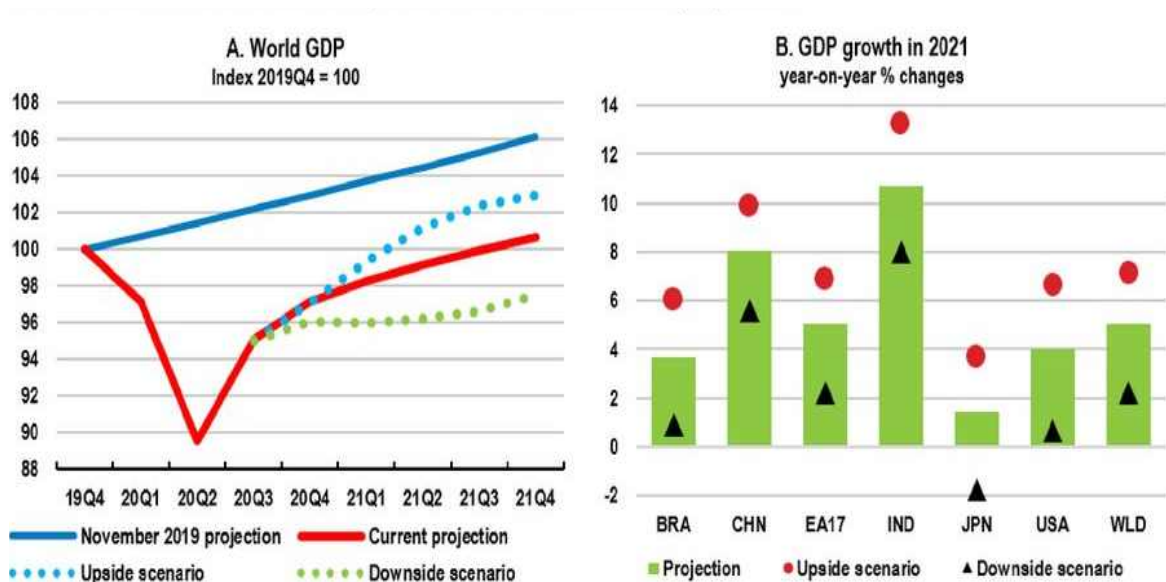
-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 추이 -

기준년도	'18	'19	'20(F)	'21(F)
세계경제 성장률	3.3%	2.8%	-4.4%	5.2%
선진국경제 성장률	2.2%	1.7%	-8.0%	4.8%
신흥국경제 성장률	4.5%	3.7%	-3.0%	5.9%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 미국(+3.7%), 프랑스(+2.7%) 등 선진국 시장의 경제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2.3%)한 반면, 브라질(+3.3%)과 러시아(+2.5%)의 전망치 상향에도 불구하고 인도(-5.8%) 및 아세안 5개국(-1.4%) 등의 전망치가 하향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하향 조정(-0.2%)
- OECD는 9월 발간한 잠정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동안 소비가 위축되고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발표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지원이 지속되지 않는 한 세계 경기의 수축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OECD의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 -



* 출처 :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0.9

-지역/국가별 20년 GDP 성장률 전망치 -

지역/국가	기관	전망치	주요내용
글로벌	IMF	-4.4%	6월 대비 +0.8% 상향 조정
	OECD	-4.5%	6월 대비 +1.5% 상향 조정
선진국	IMF	-8.0%	6월 대비 +2.7% 상향 조정
신흥국	IMF	-3.3%	6월 대비 -0.2% 하향 조정
한국	한국은행	-1.3%	8월 기준. -1.1% 하향 조정
	IMF	-1.9%	6월 대비 +0.2% 상향 조정
	OECD	-1.0%	6월 대비 +0.2% 상향 조정
	한국경제연구원	-1.1%	소비가 큰 폭으로 역성장(-4.6%)하고 내년에도 +2.7%로 소폭 반등하는데 그칠 것이나, 설비투자의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위축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미국	IMF	-4.3%	6월 대비 +3.7% 상향 조정
	OECD	-3.8%	6월 대비 +3.5% 상향 조정
중국	국가통계국		1Q -6.8% 역성장 이후 2Q +3.2% 3Q +4.9%로 V자 반등에 성공했으나 컨센서스(+5.2~5.5%)대비 하회
	IMF	1.9%	6월 대비 +0.9% 상향 조정
	OECD	1.8%	6월 대비 +4.4% 상향 조정
일본	IMF	-5.3%	6월 대비 +0.5% 상향 조정
	OECD	-5.8%	6월 대비 +0.2% 상향 조정
EU	IMF	-8.3%	6월 대비 +1.9% 상향 조정
	OECD	-7.9%	6월 대비 +1.2% 상향 조정

* 출처 : 9월 이후 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내용 취합/정리

한국 3Q GDP 분석 및 전망

해외건설 인사이트 지난호에서 전망했던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

1분기(-1.3%), 2분기(-3.2%) 연속 역성장했던 우리경제는 3분기 속보치 기준 +1.9%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 4분기에 약 +1.4%의 성장률을 시현한다면 한은의 수정목표치인 -1.3%를 달성할 수 있음

하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역성장(-1.3%)이며, 민간소비도 0.1% 감소했고, 3분기 성장의 주요 원인은 수출증가(+15.6%)였는데 이는 2Q 실적(-16.1%)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또한 달러약세는 우리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

따라서 민간소비 진작이나 정부의 재정집행이 없다면, 4분기에 3분기와 같은 성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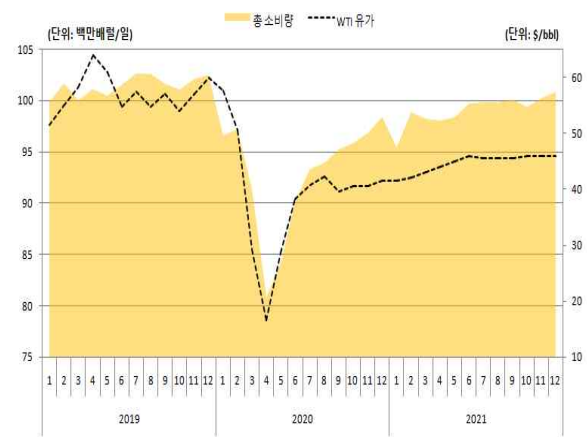
- (국제유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년 유가는 소비위축·저성장 등 하방요인과 OPEC+ 감산합의 및 소비반등 등 상방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예단하긴 어렵지만 전년(약 57불)대비 크게 감소한 39불 안팎 예상(WIT 기준/배럴당)

* 美IEA('20.10), '20년 WTI 38.76불/배럴(현물평균) 전망

- 세계 석유 공급 및 소비 전망 -



- 세계 석유 소비 및 유가(WTI) 추이 -



- **(미국 기준 금리)** 최근 FOMC회의(9.16)에서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함에 따라 미국 기준 금리는 0.00~0.25%인 현 기준 금리가 지속될 전망
- 동 FOMC 회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23년까지 금리 인상 단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대 고용 도달, 인플레이션 2% 이상을 상당 기간 초과할 때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 될 것으로 보임

- 미국 기준 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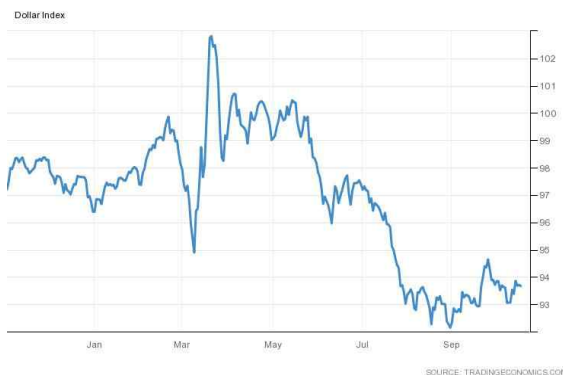


-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 시장 안정화 및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일반적으로 미국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미국은 물론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영향이 건설투자로 이어질지 여부는 해당국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로 이어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환율)** 달러 인덱스(DXY, Dollar Index)는 3월 중순 100 이상을 상회하다 5월부터 추세적 하락이 이어지며 92~94를 유지하는 등 약세로 전환, 이는 미국 재정 정책 및 경제 전망에 대한 영향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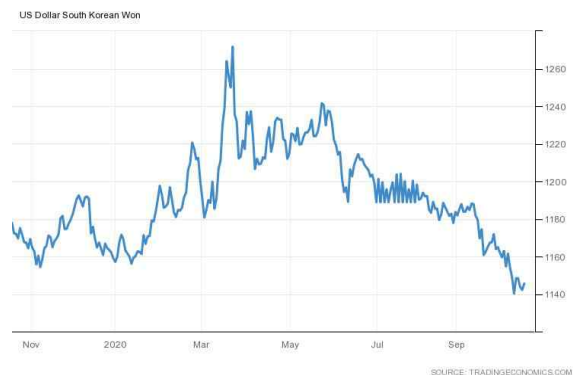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2분기 1,200~1,240원선이 지속되다가 7월부터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7월 1,160~1,200원을 유지하며 원화 강세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 10월부터는 원화 강세 현상이 유지되며 1,130~1,150원 선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원화 약세는 해외 수주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프로젝트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계약 통화, 기자재 구입 등 지출시 통화의 종류 등 사업별 상황에 따라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음

- 주요 환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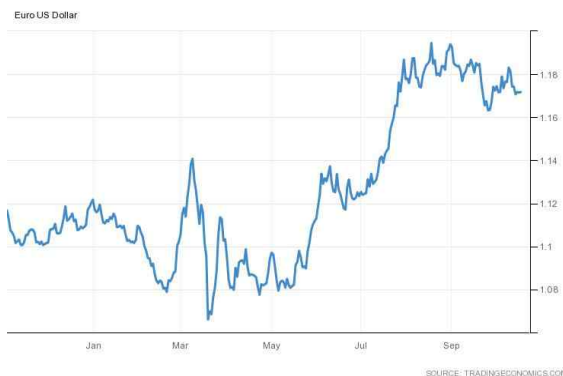
- 달러 인덱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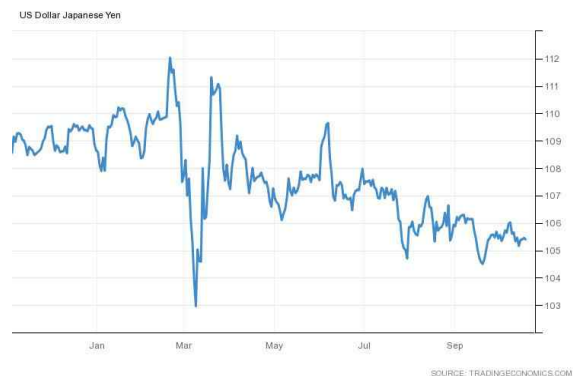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



- 달러유로 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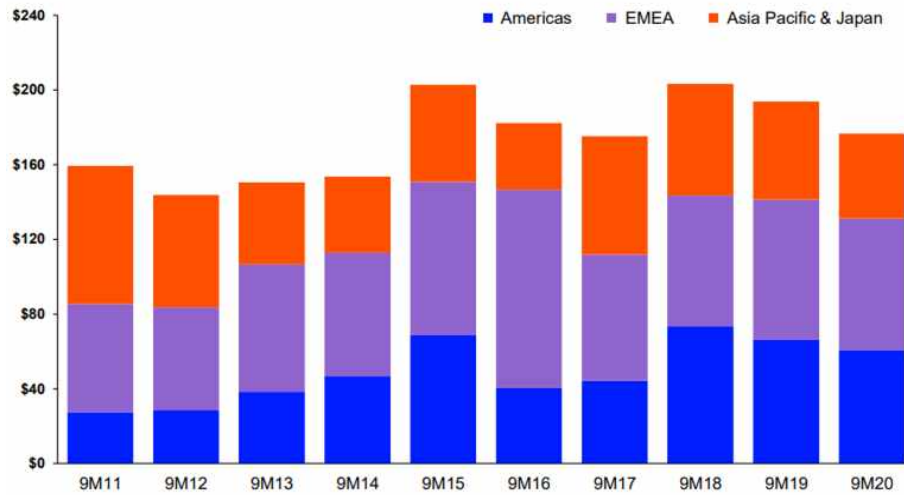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 -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 2020년 3분기 글로벌 프로젝트 금융 대출(Loan) 규모는 총 1,767억불 (518건)로 전년 대비 9% 감소했으며, 2분기 대비로는 3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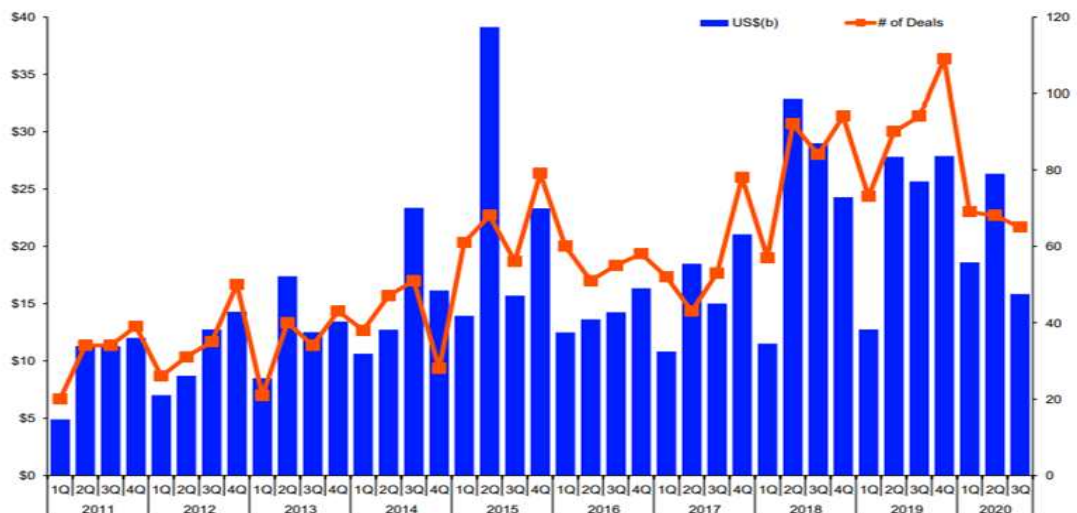
- 최근 10년 3분기까지 Project Loan 규모(십억불) -



* 출처 : PFI, PFI Financial Tables Q3 2020

- 아시아태평양, 미주, EMEA 3지역 모두 감소
- 3분기 중 성사된 가장 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41억 달러 규모의 Umm Wual Ma'aden 인산염 제조공장 프로젝트
- (미주) '20년 3분기까지 미주지역의 프로젝트 대출 규모는 총 201건, 608억불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으며 3분기 중 시행된 프로젝트 대출 중 가장 큰 브라질의 13.5억불 규모 Buzios 5 Mv32 B.V.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석유화학부문은 3건의 프로젝트에서 24억불의 거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37%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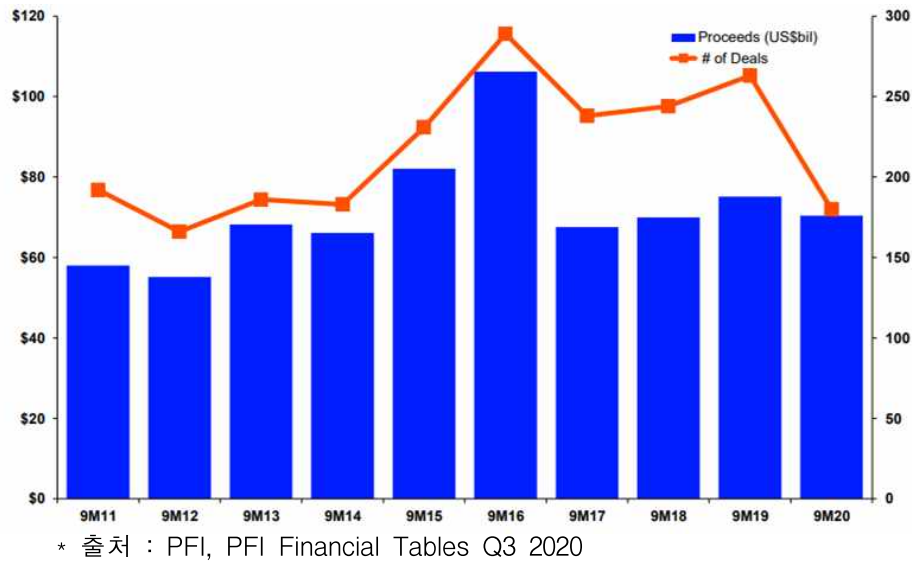
- 미주지역 Project Loan 규모(십억불) -



* 출처 : PFI, PFI Financial Tables Q3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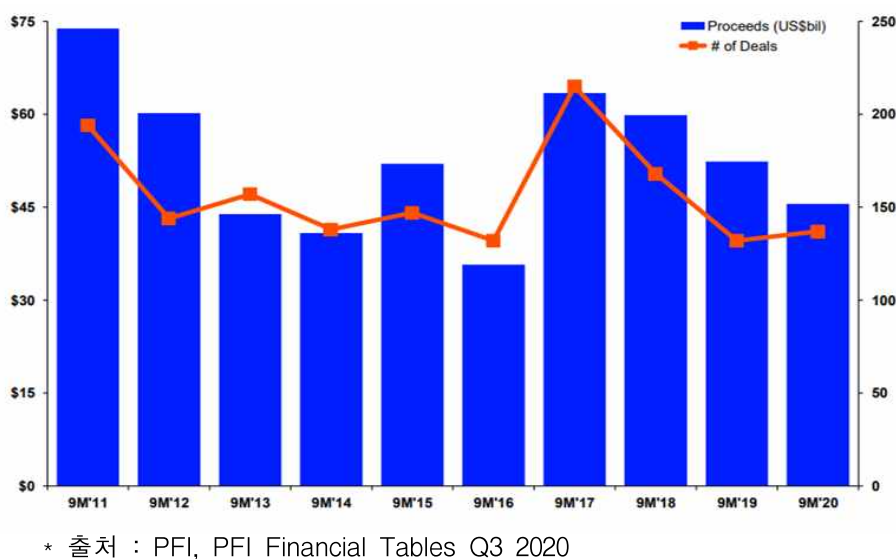
- (EMEA)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총 180건, 740억불의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프로젝트 대출은 총 22건, 226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41%에 그쳤음

- EMEA지역 Project Loan 규모(십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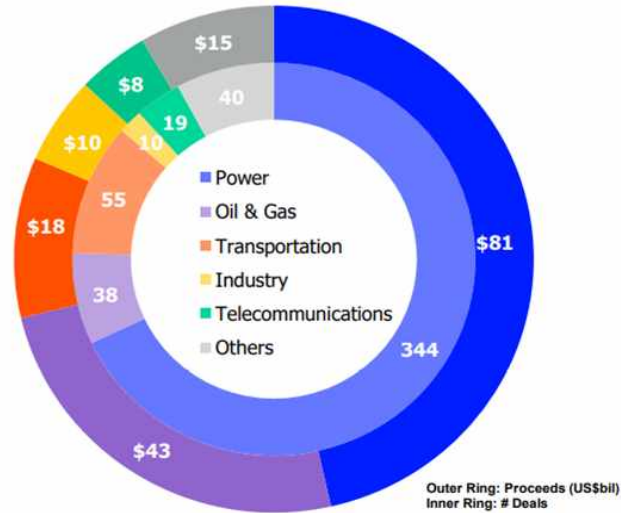
- (아태)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에서는 총 137건, 455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으며, 2분기 대비는 33% 감소했음

- 아태지역 Project Loan 규모(십억불) -



- 공종별로는 발전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84건, 214억불 규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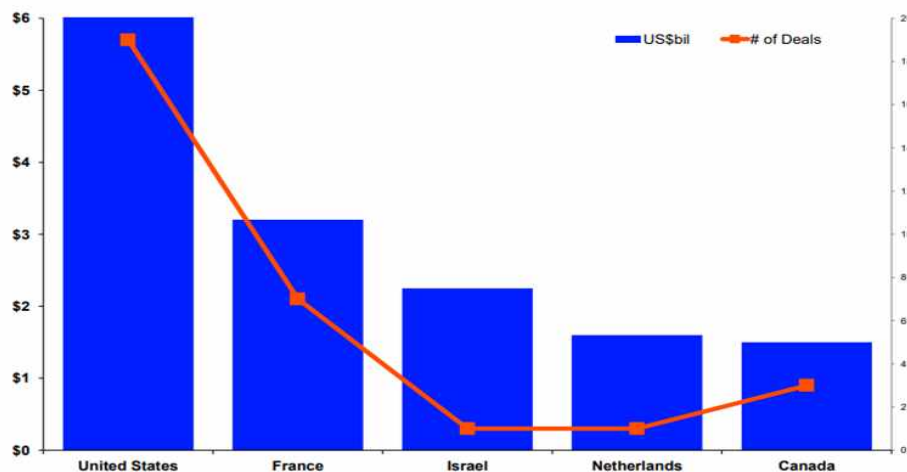
- 공종별 Project Loan 규모 -



* 출처 : PFI, PFI Financial Tables Q3 2020

- 프로젝트 Bond 시장의 규모는 334억불로 전년 동기(337억불)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건수는 66건으로 11건 감소
- 국가별로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캐나다 순으로 프로젝트 Bond 발행규모가 많았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미국(19), 브라질(8), 프랑스(7), 스페인(4), 캐나다(3) 순이었음

- 국가별 Bond 발행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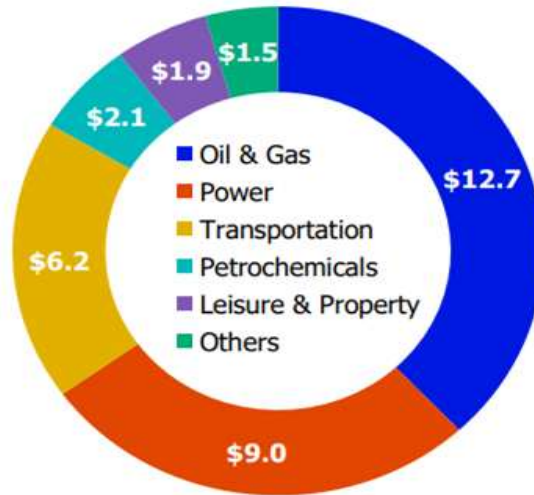


* 출처 : PFI, PFI Financial Tables Q3 2020

- 공종별로는 석유&가스 부문이 12.7억불, 전력부문이 9억불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교통, 석유화학, 레저&프로퍼티 순이었음

- 공종별 Project Bond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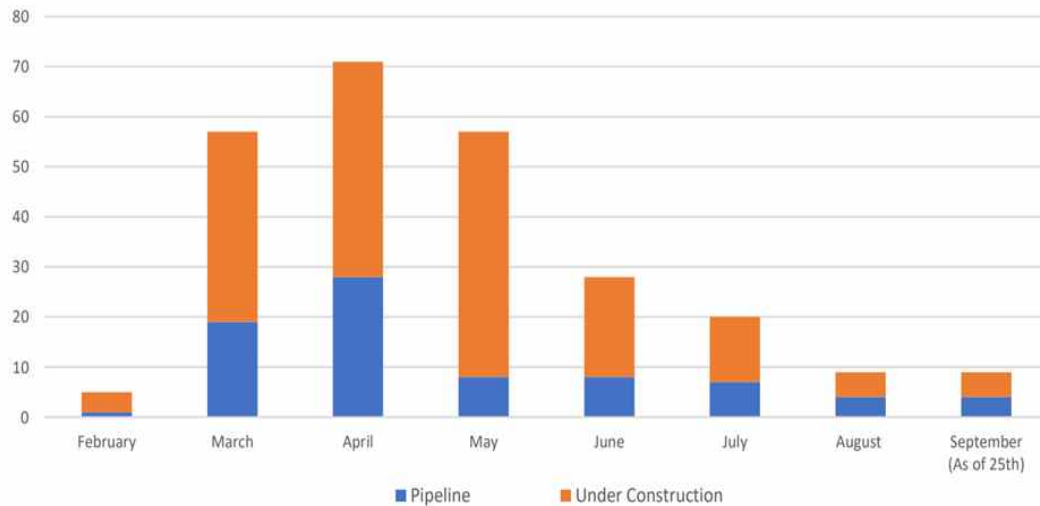


* 출처 : PFI, PFI Financial Tables Q3 2020

3. PPP 시장 동향

- WB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EMDE(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시장에서 총 256개의 프로젝트가 취소 혹은 지연되었음
- 파이프라인 단계 프로젝트의 중단은 4월에 정점을 찍었고,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시공 중인 프로젝트의 중단은 3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5월에 정점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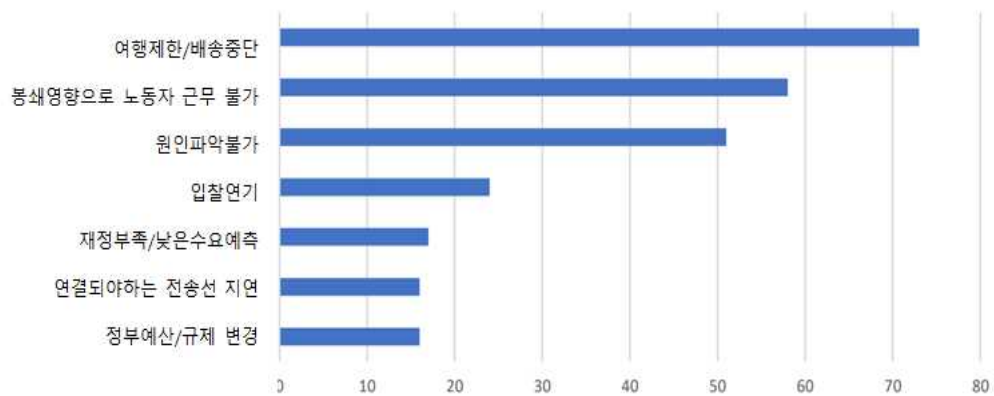
- EMDE 시장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된 프로젝트 개수 -



* 출처 : WB PPI Database, COVID-19 Operational Disruptions in Infrastructure.

- 동아시아 및 태평양(EAP)에서는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부문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는데 주요 투자자인 중국과 한국의 폐쇄 및 여행 제한으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에 기인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LAC)에서는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는데 콜롬비아에서는 커뮤니티 폐쇄 조치로 인해 송전선 건설이 지연되면서 다수의 개발 단계에 있는 풍력 발전 단지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고, 멕시코에서는 정부의 무 부채 정책(Non-Indebtedness Policy)으로 인해 입찰이 취소되었음
- 남아시아(SAR)에서는 인도, 방글라데시 및 네팔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연되었는데 인도에서는 lockdown 으로 인해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이 지연 또는 폐쇄되었으며, 네팔에서도 9건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 공사가 중단되었음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SA), 유럽 및 중앙 아시아(ECA),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는 총 49개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연 또는 취소되었음

- 지연/취소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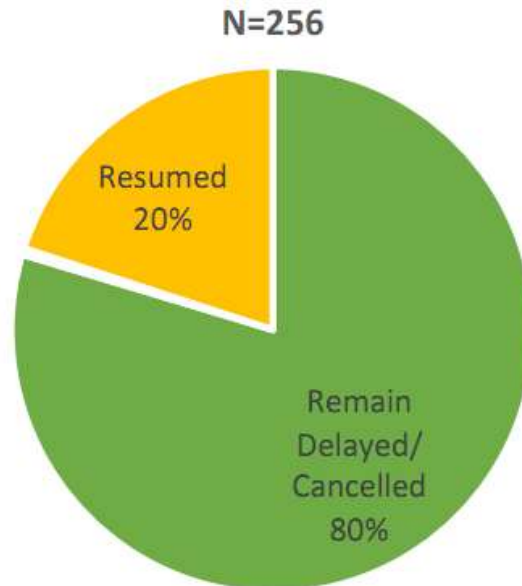
* 출처 : WB PPI Database, COVID-19 Operational Disruptions in Infrastructure

- 코로나19 관련 지연/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여행제한 및 건설자재의 공급망 중단
 - 외국기관이 후원하는 프로젝트는 종종 건설현장에 외국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파견되어야 하는데 입국제한으로 인해 해외 엔지니어가 프로젝트 국가에 입국하지 못해 지연 발생
 - 건설 자재에 대한 배송 중단도 프로젝트 지연의 원인중 하나로 건설 현장에서는 중국산 건자재를 많이 이용하는데 코로나19 초기에 중국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태양광 패널 등 일부 공종은 큰 타격을 입었음
-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된 이유는 폐쇄 조치로 필리핀, 인도 및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격리를 강화하여 건설현장 노동력이 부족했음
 - 그러나 폐쇄조치와 여행 제한으로 인한 지연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필리핀에서 지연된 많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폐쇄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건설 활동을 재개했음
- 기타 이유로는 입찰 프로세스의 지연 및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정부 예산 조정 등이 있음
 -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정부의 무 부채

정책에 의해 일부 프로젝트의 공개 입찰 절차를 취소

- 256개의 중단된 프로젝트 중 약 20%는 활동을 재개했음

- 재개된 프로젝트와 계속 지연되거나 취소된 프로젝트의 비율 -



* 출처 : WB PPI Database, COVID-19 Operational Disruptions in Infrastructure

III.

해외 수주실적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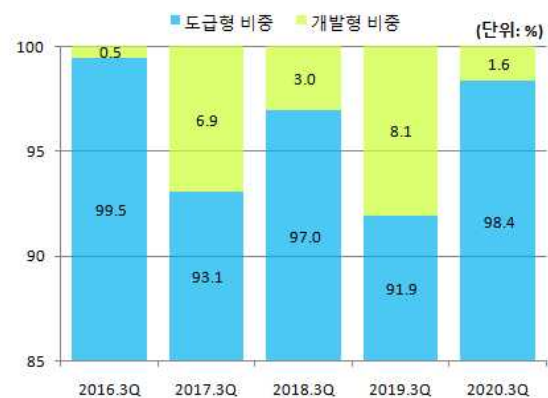
1. 수주추이 및 특징

- (추이) 2020년 3/4분기 해외건설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완연한 반등 추세
 - * 총 수주액/총 건수
- 2020년 3/4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184.8억불로 2019년 동기 약 165억불 대비 약 12% 증가
- 특히, 3/4분기 수주 프로젝트 단위 규모는 2019년 약 0.3억불에서 2020년에 약 1.1억불로 증가해 대형화 추세
- (특징) 최근 5년간 3/4분기 평균 수주액은 약 194억불로 도급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반등세
 - 2020년 3/4분기 단위 프로젝트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형 공사 수주 패턴으로 전환되었으며 도급형 수주비중 증가* 추세
 - * 도급형 수주비중 추이: 2019.3Q 91.9%→2020.3Q 98.4%
 -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비중은 대폭 감소(2019.3Q 8.1%→2020.3Q 1.6%)했으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세계 경기흐름 속에 투자 프로젝트 진출 확대 필요

- 지난 5년간 3/4분기 해외건설 수주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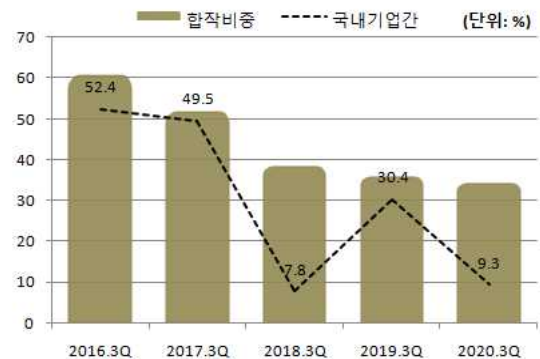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3/4분기 발주형태별 수주 추이 -



2. 지역별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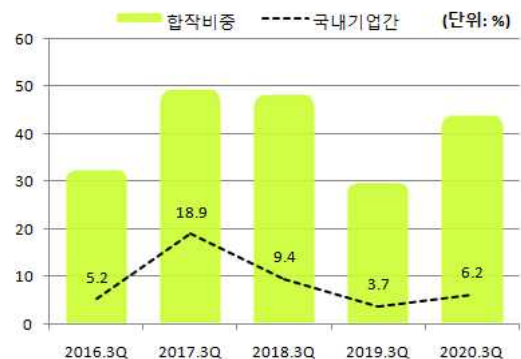
- (중동) 2020년 3/4분기 중동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반등 추세이나 국내외 기업간 협력진출은 감소 추세

- 3/4분기 수주액은 84.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급증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대형화 추세(1.1억불→3.4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3Q 36%에서 2020.3Q 약 34%로 감소추세로 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은 30.4%→9.3%로 급감
- 지난 5년간 3/4분기 중동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3/4분기 중동지역 합작비중 추이 -



- (아시아) 2020년 3/4분기 아시아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정체되고 있으나 국내외 기업간 합작비중은 크게 증가

- 3/4분기 수주액은 79.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으나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큰 변화 없음(0.3억불→0.3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3Q 29.7%에서 2020.3Q 약 44%로 급증(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도 3.7%→6.2%로 증가)
- 지난 5년간 3/4분기 아시아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3/4분기 아시아지역 합작비중 추이 -



- **(신흥시장)** 2020년 3/4분기 신흥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나 외국기업과 합작비중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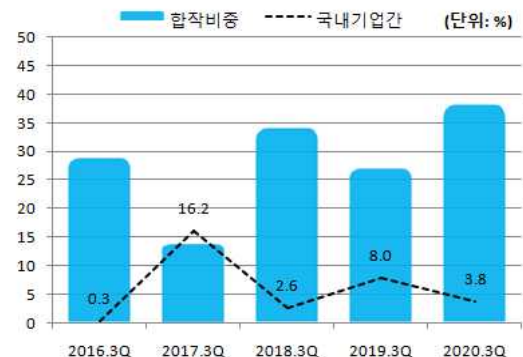
* 북미·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 3/4분기 수주액은 20.8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특히 유럽 지역은 약 65% 급감

* 전년 동기 대비 북미·태평양 63%p, 아프리카 71%p, 중남미 4배 이상 증가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3Q 27.1%에서 2020.3Q 38.3%로 급증(하지만, 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8.0%→3.8%로 크게 감소)

- 지난 5년간 3/4분기 신흥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3/4분기 신흥지역 합작비중 추이 -



- **(특징)** 2020년 3/4분기 중동지역 수주규모는 2019년 동기 대비 약 2배 수준 증가했으나 아시아지역은 전년 동기 수주액에 못 미침

- 특히 도급형 수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중동지역 프로젝트 단위규모가 크게 증가(대형화)했으나 일부국가*에 집중

* 사우디 아람코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프로젝트(18.5억불), 알제리 SONATRACH Hassi Messaoud 정유 프로젝트(16.6억불),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BP12 공사 (10.6억불)

- 우리기업들은 중동지역에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협력(합작)패턴을 지향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서는 외국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3/4분기 중동지역 지명수의 수주비중이 24.6%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이나 아시아 및 신흥지역에서는 약 45%이상으로 발주처 관리 및 개도국(중국, 인도 등) 대비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

* 중동지역 지명수의 비중: 2018.3Q 21.7% → 2019.3Q 22.2% → 2020.3Q 24.6%

3. 공종별 수주 동향

- (플랜트) 2020년 3/4분기 플랜트부문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회복 추세로 국내외 기업간 협력진출도 다시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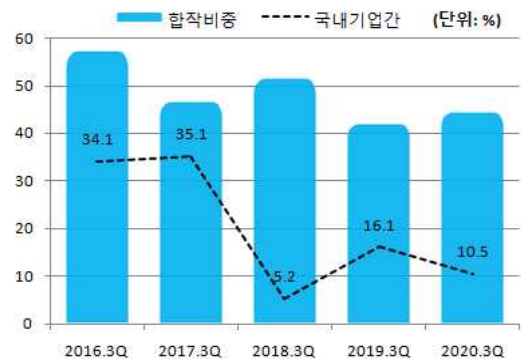
- 3/4분기 수주액은 99.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대형화 추세(2.0억불→2.8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3Q 약 42%에서 2020.3Q 약 44%로 소폭 증가추세(하지만 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은 16.1%→10.5%로 감소세)

- 지난 5년간 3/4분기 플랜트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3/4분기 플랜트부문 합작비중 추이 -



- (토목) 2020년 3/4분기 토목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수준으로 대형화 및 외국 기업과 협력비중 급증 추세

- 3/4분기 수주액은 33.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대형화 추세(0.9억불→1.3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3Q 26.9%에서 2020.3Q 62.5%로 급증(하지만, 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2.2%→0.4%로 급감)

- 지난 5년간 3/4분기 토목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3/4분기 토목부문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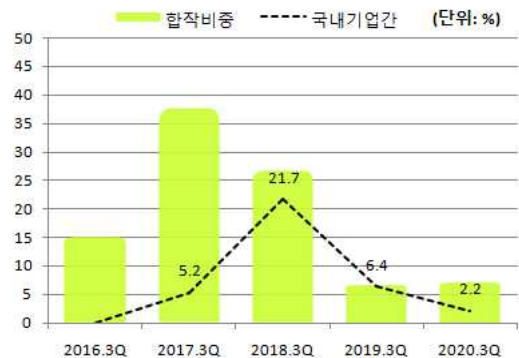


- (건축) 2020년 3/4분기 건축 수주규모는 2019년 이후 반등세로, 대형화되고 있지만 단독진출 우세
 - 3/4분기 수주액은 39.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으며 특히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3Q 6.6%에서 2020.3Q 7.1%로 소폭 증가(하지만 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6.4%→2.2%로 급감)

- 지난 5년간 3/4분기 건축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3/4분기 건축부문 합작비중 추이 -



- (특징) 2020년 3/4분기 플랜트부문 수주가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전반적인 대형화 추세로 합작비중도 증가세
 - 특히 플랜트 프로젝트 단위규모가 크게 증가(대형화)했으나 여전히 석유 & 가스부문에 집중
 - * 석유&가스부문 비중: 2018.3Q 34.1% → 2019.3Q 32.4% → 2020.3Q 31.1%
 - 우리기업들은 플랜트부문에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협력(합작)패턴을 지향하고 있으며 토목부문에서는 외국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3/4분기 지명수의 수주비중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특히, 토목 부문 지명수의 수주비중이 12.1%로 전년 동기(39.2%) 대비 약 27%p 감소해 발주처 관리 및 기획·제안(PPP) 프로젝트 피력 필요
 - * 토목부문 지명수의 비중: 2018.3Q 35.6% → 2019.3Q 39.2% → 2020.3Q 12.1%

IV.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3/4분기 수주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2%p 증가했지만 해외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이상)*** 필요
 - *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며 향후 코로나19 이후 해외건설현장 집중근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처리 필요
- 원활한 인력수급 및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해외건설 근로자 건강보험료 면제 해외 체류기간 1개월로 축소*** 및 **해외건설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확대 요망
 - * 지난 7.8일부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설
 - **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증빙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쿠웨이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가 격리 등 입국 요건이 까다로움(현행 탄력 근무제에 의거 3개월마다 **약 2주간 휴가(4×14일=56일)**를 감안하면 자국 및 현지 각각 **2주간 격리(8×14일=112일)**로 현장 근무 축소로 공사 진행에 차질)
-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유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시아 유망 개도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PPP 프로젝트 제안** 및 중동지역에 대한 선제적 **하이브리드·그린 프로젝트**** 진출이 요구됨
 - * 해외건설시장 가운데 아시아지역이 유일하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 파이 역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기에 대비한 태양·풍력+담수,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석유·가스 → 태양광, 풍력, 수소, 핵융합) 등에 대한 **국내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사우디 Aramco 등 우수 발주처에 선제적 제안 필요
- 현지 시공(조립 및 설치 등) 효율성 제고 및 공기 단축을 위한 **Off-Site Construction***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 공장 혹은 별도 부지에서 현장 설치 이전에 시설물 구성요소를 제작, 조립(Prefabrication, Modular Construction) 등을 통해 현장 근로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공법)